

보도해명자료 (16. 5. 1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석탄공사 문 닫는다(조선A01면), 에너지공기업 8곳
상장...시장에 개혁 맡긴다(조선B02면)

1. 기사내용

□ 조선일보는 석탄공사 정리, 발전사 상장, 석유공사·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중단, 댐관리 일원화, 원자력문화재단 폐지, 전력 소매판매 민간 개방, 가스 도입 민간개방 확대 등 에너지공기업의 기능조정방안을 보도

○ 특히, 석탄공사의 경우 “내년부터 석탄공사 산하 3개탄광을 순차적으로 폐광한 뒤, 석탄공사를 정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”고 보도

* 석탄공사 산하 3개 탄광 가운데 화순탄광은 2017년, 장성탄광은 2019년 폐광되며, 도계탄광은 석탄수요를 봐가며 2021년 이후 폐광될 예정으로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

□ 정부는 현재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방안을 마련 중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음

○ 석탄공사 정리 문제는 결정된 바가 없음

- 탄광의 감산과 폐광은 탄광 노사간 합의에 따른 자율적인 신청 없이는 어려우며, 석탄공사 정리를 위해서는 석탄공사 부채 처리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확정되어야 함

* 석탄공사 정리문제는 석탄공사 부채, 폐광시 폐광대책비 등 대규모 재정 조달방안이 선결되어야 하나, 중기재정계획상의 '17년 예산계획에 화순탄광 관련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고, 수급상황 감안시, '17년 화순탄광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

- 석탄공사 정리문제는 연탄가격 인상을 통한 수요 감축 및 석탄공사 부채처리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으로, 확정된 바 없음

○ 해외자원개발부분도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,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 해외자원개발추진체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임

○ 또한, 한전 가정용 전력판매 시장의 전면 민간 개방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,

- 발전사 상장, 댐관리 일원화, 원자력문화재단의 폐지, 가스도입 민간 개방 확대 등도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김정일과장(044-203-5120)

석탄산업과 이상준 과장 (044-203-5280)

자원개발전략과 이승렬 과장(044-203-5140)

전력진흥과 김성열 과장(044-203-5260)

전력산업과 노건기 과장(044-203-5240)

원전산업정책과 박재영 과장(044-203-5320)

가스산업과 이호현 과장(044-203-5230)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